

남원시민의 장 수상자 선정

부문별 6명 선정... 10월 17일 제33회 흥부제 행사서 시상식 개최



문화장 현종준



체육장 유호근



효행장 최영희



봉사장 조용봉



산일노동장 안광실



애항장 박노일

남원시는 '2025 남원시민의 장' 수상자 6명을 선정하고, 오는 10월 17일 제33회 흥부제 행사에 시상식을 개최하고 각 부문 수상자들에게 남원시민의 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올해 수상자는 △문화장 현종준 △체육장 유호근 △효행장 최영희 △봉사장 조용봉(65세) △산일노동장 안광실(65세) △애항장 박노일(65세) 씨 등 6명이 선정됐다.

문화장 현종준(63세) 씨는 남원향교 지문위원으로 지역 전통문화 계승과 인성교육에 헌신해 왔으며, 체육장 유

호근(58세) 씨는 남원시체육회 부회장으로 전동 스포츠 씨름 육성과 전국 대회 유치에 힘써 지역 체육과 경제 활성화에 공헌했다.

효행장 최영희(80세) 씨는 51년간 시부를 봉양하며 효행을 실천하였고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효행의 귀감이 되었으며, 봉사장 조용봉(65세) 씨는 새마을지도협의회 활동을 통해 꾸준한 봉사와 사회적 약자 지원으로 지역사회 화합에 기여하였다.

산일노동장 안광실(65세) 씨는 〈쥬재성 대표이사로서 사업장을 지역으로

이전해 새로운 일지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고용 창출을 선도하였으며, 애항장 박노일 씨는 지역고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과 고향사람기부제를 실천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했다.

최경식 시장은 "시민의 장은 개인의 명예를 넘어 남원 공동체 전체의 자긍심을 높이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과 봉사를 실천하는 인물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19회 순창군 사회복지대회’ 성황리 개최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 · 화합 다져

제26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는 제19회 순창군 사회복지대회가 23일 순창군장애인체육관에서 열렸다.

순창군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고 순창군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사회복지 관계자와 기관 · 단체장, 군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회는 원주공류학교의 식전 공연으로 막을 열었으며, 기념식에서는 내빈 소개와 함께 사회복지 유공자 16명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다.

수상자들은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순창군지회, 육천오양원, 순창군사회복지협의회 읍·면 지회 등에서 헌신하며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와 나눔을 실천해 온 인물들이다.

행사는 사회복지 윤리선언 낭독과 기념촬영으로 이어졌으며, 엄영수 코미디언 등 예술인들의 축하공연이 펼쳐져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제26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는 제19회 순창군 사회복지대회가 23일 순창군장애인체육관에서 열렸다.

점심 만찬 자리에서는 참석자들이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며 화합을 다졌다.

최영일 군수는 축사를 통해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순창이 더욱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누려야 할 따뜻한 복지를 군정의 핵심 목표로 삼고, 보편적 복지정책을 통해 모두가 함께 웃는

순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회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되새기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사회복지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순창군은 이를 계기로 군민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주민공청회

남원시는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촌공간계획은 지난해 3월 29일 시행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으로, 농촌의 난개발과 경제적 · 사회적 · 환경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 삶터 · 일터 · 쉼터로서의 농촌다움 회

복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6~2035년 남원시 농촌정책의 추진 방향을 정하는 10년단위 계획으로서 '사립과 산업, 문화가 연결되는 상생농촌, 활력 넘치는 남원'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공청회는 사업이 진행되는 동부 · 중부 · 서부 3개 지구별로 각각 개최되며, 운봉읍, 인월면, 아영면, 산내면을



남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 예방 현장 봉사 실시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9일, 도통초 정문 앞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장 봉사(아웃리치)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 봉사는 도통초 학생회와 학부모회, 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계가 참여하여 뜻깊게 진행,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 리플릿과 간식을 나눠주며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학교폭력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상담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전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이 지난 22일 추석 및 APEC 정상회의 개최를 대비하여 임실시장 일원에서 '대한민국 새 단장 캠페인'을 전개했다.

대한민국 새 단장 캠페인은 '새 시대, 깨끗한 국토, 행복한 국민'을 슬로건으로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일제히 열리게 된다.

이번 캠페인에는 임실군사회단체협의회 및 임실시장상인회, 주민, 공무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하여 임실시장 터미널, 중심 시가지 등 주요 도로변과 다중 밀집 구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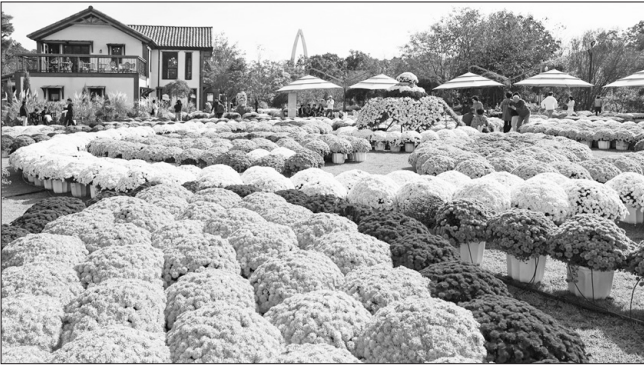
군은 추석 및 임실N치즈축제(10.8.~10.12.)를 대비하고, 국가적 행사인 APEC(10.31.~11.1.) 정상회의를 계기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마음으로 가족 ·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대대적인 국토대청결운동을 10월 2일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대한민국 새 단장 주간 하천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청소사각지대 환경정비 활동 및 불법투기 집중단속, 읍면별 국토대청소 활동도 병행해 천만 관광 명품 도시 임실의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캠페인 참여를 뜻깊게 생각하고, 노고에 감사드리다"며 "10월 긴 연휴, 추석과 임실N치즈축제가 많은 관광객과 귀성객이 임실을 찾을 것이니만큼, 지속적인 환경 정화 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임실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은 가을의 감성을 물씬 담은 경관 조성과 다양한 편의시설 보강을 통해, 봉어섬 생태공원을 찾는 이들에게 특별한 계절 여행을 선물한다.

‘가을빛 가득’ 봉어섬 생태공원

임실군, 국화 · 코스모스 등 14종 가을꽃 배치... 10월 중 만개 예정

임실군 봉어섬 생태공원에 끝없이 이어지던 한여름의 뜨거운 기운이 자취를 감추고, 서늘한 바람과 함께 가을이 찾아왔다.

계절의 변화를 고스란히 품은 옥정호 출렁다리와 봉어섬 생태공원은 울가을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해 방문객을 맞을 준비를 마쳤다.

임실군은 가을의 감성을 물씬 담은 경관 조성과 다양한 편의시설 보강을 통해, 봉어섬 생태공원을 찾는 이들에게 특별한 계절 여행을 선물한다.

오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임실N치즈축제를 앞두고 봉어섬 생태공원은 총 1만 2천여 개의 국화 화분으로 채워진다.

방문자센터와 숲속도서관 주변의 넓은 잔디광장에는 국화꽃으로 꾸며진 가을 정원이 펼쳐지며, 산책길 곳곳에도 화분이 놓여 가을 향기를 따라 걷는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봉어섬의 가을은 국화에만 머물지 않는다. 여름철 꽃들로 장식됐던 화단은 새롭게 정비돼, 코레우스, 핑크몰리, 가든맘, 아스타 등 14종의 가을꽃이 자리 잡는다.

특히, 봄에 붉게 물들었던 꽃양귀비 군락지는 이제 10,000㎡ 규모의 코스

모스밭으로 탈바꿈했다. 오는 10월, 만개한 코스모스가 바람에 물결치며 장관을 연출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매년 가을 봉어섬을 수놓는 8,000㎡ 구절초와 꽃무릇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갈대와 억새 등 사조류도 깊어지는 계절의 정취를 더한다.

봄과 여름 동안 풍성한 꽃을 피웠던 각종 경관 수목 또한 서서히 옷을 갈아입으며 가을빛으로 물들 준비를 하고 있다.

군은 경관 조성뿐 아니라 방문객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가을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 · 편의시설 보강에도 주력하고 있다. 보행로를 정비해 걸기 좋은 길을 마련하고, 벤치와 데크 전망대 등 쉼터 공간을 새롭게 조성해 가족 · 연인 · 친구 누구와 함께 와도 편안히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

심 민 군수는 "유난히 길고 힘들었던 여름을 지나, 가을빛으로 물든 봉어섬 생태공원이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여유를 전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계절 언제 찾아도 매력이 가득한 봉어섬 생태공원을 가꾸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신덕 수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선정

임실군이 행정안전부의 2026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신덕수천지구가 선정, 국비 39억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78억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수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하천 정비 1.0km, 교량 개기설 12개소 등을 정비하게 된다.

수천지구 사업 선정을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수천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사업 선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며 다각적인 준비를 통해 국가 예산 신청 및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군은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하여 자연재해 예방 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이같은 선정에는 심 민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남다른 노력이 한몫했다는 평가다.

그 결과 임실, 오수, 금암 풍수해생환권 정비사업에 총사업비 1,084억원,



신기, 관촌 재해위험개선지구에 409억원을 확보하여 활발하게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발생한 극한 호우 및 집중호우로 군민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재해예방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지속적으로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임실을 만드는 동력을 확보해 왔다"며 "자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이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재해예방 사업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의료원,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최우수'

남원의료원 이도 주 관한 '2025년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최초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기존 유형별 기준이 없어짐에 따라 최우수 등급의 기준이 90점에서 92점으로 상향 조정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출자 · 출연기관 중 최초 5개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쾌거이다.

남원의료원에 따르면 전년도와 동일하게 6개 분야 11개 항목 대상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ESG경영 선포 및 고

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 기관장 주도의 실행의지,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협조 등도 정책사항 반영 노력, △재무건전성 개선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등에서 높은 성과를 인정받았다.

오진규 원장은 "출연기관 최초 5년 연속 최우수 기관 달성은 양질의 의료 및 포괄적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직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최상의 공공의료 서비스로 환자 행복을 위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 통

국립민속국악원, 27일 '소리 판 명창무대' 개최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종현)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예음헌에서 2025 '소리 판 명창무대'를 개최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박록주제와 강도근제 홍보가를 대표하는 명창을 초청해, 두 유파의 소리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진다.

판소리 마당-소리 판은 국립민속국악원이 개원 이래 꾸준히 이어온 대표 기획 공연으로, 당대 명창의 소리를 통해 전통 판소리의 원형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는 무대이다.

이날 무대에는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예능보유자인 정순임 명창이 박록주제 홍보가를, 전남대학교 국악과 교수로 활동 중인 정인삼 명창이 강도근제 홍보가를 선보이며, 두 명창의 소리는 유파별 개성이 뚜렷해서 같은 홍보가 안에서도 서로 다른 특징을 드러낸다는 평가다.

국악원 공연담당자는 "박록주제와 강도근제 홍보가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드문 무대라며, 명창들의 삶과 예술이 깃든 소리를 통해 판소리 홍보의 깊이와 울림을 온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직불금 수령 대상자 지방세 체납자 압류 추진

순창군은 2025년 제4분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맞아 농림업 직불금 수령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압류 조치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먼저 관련 부서로부터 농 · 임업 분야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확보한 뒤 체납 여부를 조회하고, 체납자에게 압류 예고서를 우편 발송해 직불금 지급 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압류 예고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수령자에 대해서는 10월부터 11월 직불금 지급 시기에 맞춰 지급 계획에 압류를 설정하고 추심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보조금 및 지원 사업 추진 시 지방세 체납 여부 조회를 필수 절차로 삼아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지방세 체납자는 향후 보조사업 신청 및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소방서,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 당부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가을 수확기를 맞아 농촌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고는 경사지에서의 작업 중 전복이나 예초기 · 관리기 작업 중 개입 사고가 주요 유형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해 농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남원소방서는 농민들에게 △작업 전 농기계 점검 및 정비 철저 △안전화 등 보호장비 착용 △음주 후 농기계 조작 금지 △어린이 동승 · 방치 금지 등의 준수를 당부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무리한 자체 대응보다 신속히 119에 신고해 구조 · 구급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김승현 서장은 "농기계 안전사고는 단순 부주의로도 쉽게 발생하지만, 안전 수칙을 지키면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